



#### 시대인재

#### 매거진이란?

#### SDIJ 매거진이란?

시대인재 N 재수종합 4기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가 실려 있는 간행물입니다. 재종 학생들을 위한 자료이므로, 학습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 도움이 될 만한 학원 주변 정보, 졸업생들의 솔직한 후기 등 부엉이들의 관심사를 끌 만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매거진의 제작 의도는 무엇인가?

매거진은 시대 재종 학생들의 학원 생활에, 더 나아가 수험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제작하였습니다. 여러 호차가 발간될 예정이므로 시기별로 필요한 이야기들을 담을 계획입니다.

#### 매거진은 누가 만드는가?

매거진은 시대인재 서포터즈 소속 매거진 팀이 원고를 작성, 편집하였습니다. 시대재종을 경험한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부엉이들과 공감대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 매거진 활용법은?

부엉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수험생활 가이드북이 될 수도, 가볍게 소화 가능한 주전부리일 수도, 잔잔한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거진팀 일동

SDIJ MAGAZINE VOL. 01

01

04

18

**25** 

머리말

시대인재 매거진이란?

ATG의 목소리

화학| 생명과학|

생명과학II 물리학

지구과학। 지구과학॥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

학습전반 기출활용

다양한 컨텐츠의 활용 과목별 세부사항 부엉이들의 말말말

결국 시간이 약이었습니다 다니던 대학을 떠나아겠다는 생각 좌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복잡한 감정을 가볍게 넘기기 롱런을 위한 밸런스를 고려하며 대치동 소개

대치동 Cafe 대치동 Hospital 대치동 Food

2020+05



화 학 |



#### 올해 ATG를 창작하며

학생들을 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시간은 부족하고 뚜렷한 방향은 보이지 않습니다. 2021학년도 화학 I ATG는 이런 고민들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기출문항 분석서이며, 개정된 교육과정에 적합한 기출문항에 대한 면밀하고 정확한 분석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2021학년도 화학 I ATG는 첫째, 이전 교육과정과 겹치는 주제의 수많은 기출문항들 중 가장 주요한 기출들을 고민 끝에 엄선하여 제시합니다. 둘째, 새롭게 들어온 주제는 실제 교육평가 지침에 적합한 선에서 최소한 그리고 최대한 어떻게 출제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셋째, 교과서와 연계교재에서 볼 수 없는 실전개념과 특별한 풀이법을 내세워 모든 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넷째, 대한민국 최고의 출제진이 제작한 문항을 통하여 출제 원리를 다시금 체화하게 합니다.

개정 첫 해, 기준이 되어야 할 기출문항을 혼자 분석하기란 쉽지 않고 중구난방인 문제들은

# 1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ATG 추천 활용 방안



개념 파트에서는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빠진 개념이더라도 개정된 교육과정에서 효율적인 풀이의 도구가 되는 부분들은 과감히 실었습니다(ex. 실험식). 어떤 개념은 단 하나의 기출문항도 없으나, ATG만 보고서도 모든 출제 방향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여러분 대신 끊임없는 고뇌를 감수하였습니다. 개념 파트에서는 TMI조차 단 하나의 문구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저 중요하지 않아서 작은 글씨로 실은 것이 아닙니다. 큰 글씨는 '적어도 이것만큼은'의 의미이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안정된 고득점을 원하는 분들은 책의 모든 내용을 비판하고 분석해보며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연습문제 파트는 위와 달리, 보다 더 엄밀하게 서술하였습니다. 예컨대 '실험식' 따위의 현교육과정에서 배제된 개념이 활용되어야만 풀수 있는 문항은 모두 삭제하였고, 새롭게 들어온 개념들이 꼭 활용되도록 적재적소에 중요 선지를 배치하였습니다.

#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화학 | 은 지속적인 문제풀이를 통해 미시적으로는 개별 문항에 대한 정확하고 빠른 풀이, 거시적으로는 시험 운영에 있어 실수 없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를 수능 당일까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화학 । 에서만큼은 이러한 과목 특성을 비추어봤을 때 ATG, Revival, Survival 등은 별개의 교재가 아닙니다.

ATG가 낚시하는 법을 가르친다면, Revival 월척을 낚을 수 있도록, Survival은 그 어느 강, 바다에 있더라도 낚시의 신으로 군림할 수 있도록 함에 목표가 있습니다. 즉 일련의 커리큘럼을 토가 나올지언정 잘 따라오신다면 진정으로 '살아남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일 수 있으나 저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것을 기억해주십시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뒤에서 더 좋은 컨텐츠를 위해 달리고 있겠습니다. 컨텐츠 관련해서는 어떠한 비판도 달게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생명과학 |

#### 생명과학 11

## 01

#### 올해 ATG를 창작하며 고려한 점



교육과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유형에 대한 대비와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실력을 꼼꼼히 잘 다진 학생들은 새로운 문제들도 익숙하게 풀어 나가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새로운 문제 앞에서 당황하고, 시간을 빼앗기며, 수능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쩌면 숨 막히는 수능 현장에서조차 불안감과 걱정을 느낄 것입니다.

2021학년도 ATG는, 학생들의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개정 생명과학을 가장 발빠르게 대비하는 교재가 돼야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제작하였습니다. 출제자의 합리화와 욕심으로 얼룩진, 난해한 조건들을 나열한 문제들이 아니라, 모든 문제들이 '개연성 있는 신유형'이 되어야 함을 염두에 두고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가장 논리정연하고 개연성 있는 문제들만 엄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 ATG에 담겨 있던 문항과 이론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책의 첫 장부터 다시 글자를 새겨 나간다는 근본적인 생각에서 집필을 시작하였습니다.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과 모의평가는 물론, 교육청 모의고사의 동향 하나하나를 치열하게 분석하며 개정을 파악하고,

그 핵심을 짚는 교재를 그려나가며 완성도를 쌓아갔습니다.



한 권 내에 상당히 많은 문항이 수록되었음에도 불구, 정답만 있어 불편하다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올해부터는 해설을 담았습니다. 강의와 함께 하는 교재이기 때문에 상세한 해설을 담기 보다는 문항을 잘 해결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담았습니다. 고난도 문항들의 경우 생략된 해설들은 있더라도 논리의 줄기는 지켜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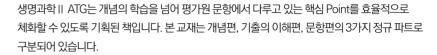
####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ATG 추천 활용 방안

ATG는 수능 실전에서 사용해야 하는 개념과 문제 풀이 사이의 간극을 메꿔주는 교재입니다. 문제마다, 유형마다 정답을 가장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논리적 방법을 개발하고, 터득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실전 개념을 안정적으로 체화할 수 있게 도울 수 있게 수록되었습니다. 수록된 문항들의 배열을 곱씹으면서 선생님의 설명과 자기주도적 탐구를 통해 유형별 논리를 체화, 적용하는 훈련을 지속하면서 문제풀이 속도와 안정감을 높여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논리를 하나라도 놓치면 돌아가면서 풀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풀었던 문제도 복습하면서 더 빠른 풀이를 찾고, 일반화 가능한 논리 가닥을 뽑아가며 학습하시길 권유드립니다.

13 ATG에 대해 자유롭게 하고싶은말

많은 학생들에게 2021학년도 ATG는 기출문제를 제외하면 처음으로 접하게 될 컨텐츠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올해 ATG의 창작 목표는, 수업만을 위한 교재가 아닌, 그 자체로 훌륭한 자습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많은 유형을 담고자 평가원에서 다루었던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과년도 Survival에서 보여주었던 출제 가능한 논리 유형들까지 수록하며 넓은 스펙트럼의 유형을 수록하였습니다. 수험생이라면, 무리하게 많은 문항이 담긴, 문항 창작 과정의 고민 없는 양치기용 과제장을 푸는 것보다는, 가장 알맞은 학습량과 Quality의 문항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더 우수한 성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을해 ATG를 창작하며 고려한점





개념 파트에서는 평기원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Point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단순 개념뿐만 아니라 실전에서 사용되는 문제 유형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과 풀이 방법을 함께 담았습니다. 즉, 이론적인 학습과 스킬적인 부분도 같이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회하였습니다. 특히나 암기가 필요한 부분과 암기 이상의 계산이 필요한 부분을 각 특징에 맞게 서술하여 학습에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개념 파트의 중간과 끝 부분에는 단원별 개념 학습에 맞춰 기획된 다지선다형, OX문항들을 수록하여 학습한 개념을 문항에 체화 및 적용하고, 학습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5종 교과서의 분석을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여 출제가 가능한 부분을 중점으로 각 단원을 작성 및 개정하였습니다.



기출의 이해 파트에서는 출제 경향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해당 단원에서 평가원 모의고사에 출제되었던 기출의 빈도 수 분석과 함께, 출제 시 가장 핵심적인 유형들의 분석을 담았습니다. 지속적인 데이터 업데이트를 통해 과거부터 최신까지의 경향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킬러 비킬러 모두를 문제 및 선지 구성이 반복되는 패턴으로 보여드림으로써, 수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보다는 기존 문항에서 발전하는 방식으로 출제되었음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파트를 직접 읽고 기출을 분석하시면서

- 1. 생명과학 II 를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기출문제에 대한 적절한 태도와 생각
- 2. 기출문제에 대한 경험치와 숙련도가 부족하기에 미처 하지 못한 생각
- 3. 스스로 많은 기출 문제를 학습하면서도 미처하지 못한 생각 4. 바쁘거나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한 생각 중 하나라도 놓쳤던 것이 있다면 채워갈 수 있게끔 기출의 이해 파트를 작성하였습니다.



문항 파트에서는 Quality가 높은 문항을 엄선하여 Compact하게 문항들을 구성하되, 각 단원별로 평가원에서 출제되었고 출제 가능성이 있는 유형들을 포함하게끔 구성하였으며, 수록된 각 문항을 통해 해당 문항 유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2021학년도 ATG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적합하도록 문항 구성을 재정비하였습니다. 개정됨에 따라 출제될 확률이 낮아진 유형들은 축소하고, 용어 변동을 반영하였으며, 신규 단원에 맞는 문항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너무 어려운 문항들보다는 핵심적인 문항 위주로 구성하여 추후 Revival과 Survival로 넘어가기 전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1학년도 ATG에서는 각 문항에 해설을 수록하여 수업 이후에 스스로 학습함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EBS 분석에서는 2021학년도 EBS 연계 교재에서 짚고 넘어가야하는 내용들과 출제 가능성이 있는 소재들을 정리 분석하고 수록하여, EBS 연계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 **02** 2

####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ATG 추천 활용 방안

- ① 문제는 수업 후에 누적되지 않도록 제때 학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 ② 개념과 핵심적인 문제풀이 방법을 익힌 뒤 문항에 적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③ ATG에서 다루는 내용을 수업을 통해 학습한 이후에 스스로 정리를 통해 확실히 체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기해야할 파트/암기를 기반으로 응용이 필요한 파트/킬러 파트를 나누어 정리하고 체화하면 좋습니다.

지구과학 |

#### 물리학 |

#### 올해 ATG를 창작하며 고려한 점

2021학년도 물리학 I ATG는 학생들이 새 교육과정의 고난도 유형을 가능한 빨리 정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법을 모두 전수하는 것을 제 1목표로, 최우선/고난도 기출 문제를 새 교육과정 에 맞게 선별/변형하고 테마별로 분석/수록하는 것을 제 2목표로 하여 집필되었습니다. ATG의 테마를 선정할 때는 지엽적이고 쉬운 주제는 넘어가고 중요한 주제를 폭넓고 깊게 다루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각 테마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범주에 포함됩니다.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히는 풀이법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적이며, 시험장에서 재현 불가능합니다. ATG는 출제진의 오랜 경험과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문제 풀이 일반론과 문제풀이 도구 사용법을 함께 제시합니다.

물리 문제는 항상 빨리 푸는 방법, 이른바 Shortcut이 있기 마련입니다. ATG는 평가원이 출제한 문제와 서바이벌 모의고사 출제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필수 유형별 최적의 접근방법을 제시합니다.

역학 베테랑들이 구사하는 최고난도 풀이 기교를 완전히 이론으로 정립하여 공개합니다. 풀이가 10줄에서 1줄로, 1줄에서 암산으로 줄어드는 일은 기적이 아닙니다. 물리학 I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역학이므로, ATG에서도 역학에 집중하여 여기에만 무려 3권, 총 31가지 테마를 할당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더 이상 문제 풀이 연구를 할 이유가 없도록 아예 여기서 끝내버리고자 하였습니다.



## 02

####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ATG 추천 활용 방안

물리학 I ATG는 기출 분석을 시작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것이 실전 개념, 실전 유형이다.' 라는 것을 테마별로 제시하는 강의용 교재입니다. 우선 기본 개념과 유형 풀이를 마친 다음 강의와 함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되는 예제와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EBS, 사설 문항에도 직접 적용하고 정리해보며 익히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물리 이 물리학 이으로 개정되면서 기존의 킬러 주제였던 유체역학, 역학적 평형이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오래 전의 킬러 주제였던 운동량 보존, 탄성 퍼텐셜 에너지,마찰력이 복귀하였습니다. 개정 첫 해, 수험생들이 아직 새로운 주제에 익숙하지 않은 이때 최정상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합시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저 따라오십시오.

#### 올해 ATG를 창작하며 고려한 점

- 1권-고체 파트
- 2권-유체 파트
- 3권-우주 파트
- 4권-간단 개념 정리 Part1 05~20학년도 기출 + 듄 연계 관련 선지, 지엽 포함 총 정리(약 1500개)
- 5권-간단개념 정리 Part2 05~20학년도 기출 + 듄 연계 관련 선지, 지엽 포함 총 정리(약 1500개)

작년에 지구과학 엣지가 많은 사랑을 받아 기뻤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해봅시다. 지구과학 엣지는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작년에 호평을 받은 부분은 그대로 계승하였고, 교육과정이 바뀐 만큼 기출 파트는 더욱 확장하여 단계별로 보여줄 예정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개념만 쭉 훑고 확인합니다. 중구난방식으로 나열된 개념들을 일목요연하게 요약해 다양한 그림과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고, 종종 교육과정에서 생략되어 이해가 어렵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보충하였습니다. 엣지는 여러분이 하나씩 갖고 있을 '개념서'와 컨셉이 겹치지 않습니다.



각 단원 뒤에 위치한 활동부로, 간단한 예제나 대표 기출 선지 O/X, 심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예제나 대표 기출 선지 O/X는 단순 암기가 필요한 내용이나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빠르게 점검하기에 좋고, 심화 활동은 보다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좋습니다.

문제 적용

기출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가진 도구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형별 테크닉이나 소소한 팁, 최신 경향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문제를 풀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꼼꼼하게 잡아줄 겁니다.

문제 연계

듄 연계 교재에서 선별한 '풀 만한' 문항들을 표현, 자료 제시 방식, 또는 자료 자체, 난이도 등을 다양하게 바꾸어 보여주고, 해설해줍니다. 풀어보면 알겠지만 말만 몇 마디 바꾼 단순 변형 문제들과는 다릅니다. (수능에 말만 몇 마디 바꾼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5권의선지총정리

05~20학년도 평가원시험(지구과학 1, 11)총 2000문항, 약 6000개 선지에서 바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것만을 선별하였고 올해 연계 교재에서 짚고 넘어갈만한 선지들까지 합쳐서 정리했습니다. 약 3000개 분량으로 예상하며 4권과 5권으로 나누어 들어갑니다. 여기에 앞부분에는 개념을 빠르게 훑을 수 있는 파트까지 들어가니, 4권과 5권은 수능 시험장까지 들고 갈 수 있는 알짜배기 책이 될 겁니다.



#### ATG의 목소리

#### 지구과학॥

올해 ATG를 창작하며 고려한 점

작년 지구과학 II ATG와 비교하여 '접근성'와 '효율성'을 높이려 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고려 사항이 있었습니다. '접근성'의 측면에서 작년 지구과학॥ ATG는 테마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고, 내지 디자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한 페이지 내에 서술되는 문장의 길이도 매우 긴 편이었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이 책을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지구과학 II ATG는 테마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분해 두었으며, 내지 디자인 역시 미적으로 아름다우면서도 직관적인 학습을 해치지 않게 구성하도록 노력하였고, 학생들이 문장들을 읽다 지치지 않도록 문장의 길이를 가급적 줄이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여백을 적절히 활용하였습니다.

'효율성'의 측면에서 작년 지구과학॥ ATG는 각 단원의 모든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ATG의 Concept인 '실전 개념서'라는 측면에 다소 부적합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올해 지구과학 II ATG는 지구과학 과목의 특성상 단순히 암기만 하면 풀리는 내용들은 가급적 배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교과 외 내용을 다루는 'TMI 자료실'의 경우, 작년에 비해 분량을 줄여 수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ATG 추천 활용 방안

아래와 같은 내용을 올해 지구과학 II ATG 1권의 학습GUIDE에 서술해 두었으니 해당 부분을 참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올해 지구과학 II ATG는 크게 5가지 종류의 테마가 있습니다.



GUIDE

'학습 GUIDE'에는 지॥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와 이 책의 구성 및 커리큘럼을 서술해 두었습니다.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는 2020학년도에 지구 과학, II를 응시해본 N수생들이 한 번쯤 읽어 보길 추천합니다. 책의 구성 및 커리큘럼은 ATG 지 II 를 학습하기 전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어떻게 학습해야할지 궁금한 학생들이 읽어보길 추천합니다.



'개념 CHECK'는 개정 교육과정 지॥ 4종 교과서의 문장들을 '합집합' 범위에서 재서술하여 간단한 정오 판단 또는 빈칸 채우기 유형의 문제로 제공합니다. 인강, 현강, 자습 등의 방식으로 개념 학습을 마쳤을 때 본인이 학습 수준이 교과서와 비교할 때 어느 수준으로 되었는지 점검해 볼 때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합집합' 범위에서 구성한 만큼, 교과서의 날개 등에 서술되어있는 다소 '지엽적'이라고 느낄만한 내용도 종종 포함되었으니, 교과서 내에서 출제될 수 있는 '지엽'을 대비하는데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BRIDGE

'실전 BRIDGE'는 개정 전 평가원 문항들 중 개념의 적용과 실제 문제 풀이 사이의 간극이 큰 유형이 출제된 단원들을 선별하여 문항 풀이의 사고 과정과 문제 풀이의 TIP을 제공합니다. 기초 개념 학습이 끝났고, 평가원 기출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풀어보려는 학생들이 활용하기를 추천합니다.



FORECAST

'EBS FORECAST'는 올해 지기 수능특강, 수능완성에서 좋은 문항들을 선별해 변형하여 출제하는 파트입니다. 수능에 출제되는 EBS 연계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한 번쯤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KICE DETECTIVE'는 개정 전 평가원 문항들 중 문항 자체의 난이도가 매우 높거나, KICE DETECTIVE 개정전지॥의 교육과정내로 명확한풀이가불가능한문항들을 선별하여교육 과정 바깥 내용으로는 어떻게 풀이가 가능한지, 그로부터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또 개정 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수능이니 만큼, 올해 시행되는 6평 및 9평 전 문항을 분석하여 가능한 만큼 수능의 출제 경향을 예측해보고자 합니다. 어느 정도 '지구과학II'라는 과목에 통달하여 수능 지 || 1등급 혹은 그 이상을 노리는 학생들에게 이 파트를 적절히 활용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03

ATG에 대해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상대적으로 응시자 수가 많고 표본의 수준이 낮아 안정적인 과학 |과목을 제쳐두고 꿋꿋이 리스크가 큰 '지구과학II'과목을 선택한 여러분의 용기에 먼저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교육과정까지의 입시에 관심이 많았던 학생이라면 아시겠지만, '지구과학비'라는 과목은 다른 과학 탐구 과목과는 달리 '킬러' 문제가 출제되는 단원이 명확하지 않았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법 또한 교육과정 안과 밖의 경계에 애매하게 걸쳐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학생이 투자한 '노력'에 비례한 점수를 받기 힘든 경향이 짙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가 지날수록 표본이 '고여'가면서 난이도 대비 상위권 등급 컷은 꾸준히 높아져왔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올해 역시 교육 과정이 개정된다 하여도 '지구과학II'의 상황은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겐 이런 상황에서도 꼭 '지구과학॥'를 선택해야만 하는 목적(아마도 서울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올해 여러분에게 제공될 '지구과학 II ATG'가 수능 날 지구과학 II 문제를 단 한 개라도 더 맞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수험 생활의 시작인 3월, 4월에 > 무엇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셨나요?

#### @ 카대 유튜브남

상반기에는 EBS 연계교재를 주로 활용했습니다. 현역 때 EBS 연계교재의 많은 양을 간과했다가 미처 다보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후회스러웠습니다. EBS의 소재들 중 중요한 것들은 나중에 수많은 모의고사에서 출제될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EBS를 제대로 끝낸다면 하반기에는 모의고사를 풂과 동시에 중요 소재들에 대한 복습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계산 하에, 저는 상반기에는 EBS를 주로 공부하였습니다.

#### @ 남중 남고 한양대

저는 현역 때, 약점을 채우기에는 생각보다 수험생활이 짧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약점들을 초반부에 집중적으로 메꿔야겠다고 생각했고 가장 큰 약점이었던 수학을 4월까지 매일 공부의 60% 정도의 비중으로 공부했습니다.

#### @ 카대 사랑꾼

저같은 경우 현역 수능이 끝나고 난 후 너무 신나게 놀아서 되게 감각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감각을 끌어올리려고 작년에 풀었던 문제집이나 개념서를 복습하고, 수업에서 새롭게 배운 내용을 채워나갔습니다.



@ 재테크의 귀재

#### 작년 공부법의 문제점을 어떻게 고치셨나요?

#### @ 논술 장원급제남

재수할 때 개념부터 다시 복습하면서 성 시작하니 현역 때는 너무 문제 풀이 경 시작하니 현역 때는 너무 문제 풀이 경 시킬에만 집중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논리에 의해 문제풀이 스킬들이 만들어졌는지 생각하면서 공부하니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도 당황하지 않고 풀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들더라도 원리를 확실히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 수능시험을 볼 때는 문제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검토하는 것 또한 중요한데 현역 때는 검토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검토하는 방법까지 연습하면 수능에서 최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문제집을 풀 때 범위를 정해놓고 그 범위를 다 푼 뒤, 절대 바로 채점하지 않고 답에 확신이 들 때까지 검토한 이후 채점을 했습니다.

#### @ 카대 유튜브남

작년과 다른 공부법에 대해 고민하던 중, 저는 '복습'을 재수의 키워드로 잡았습니다. 매일 각수업 및 시험에서 '이건 무조건 건져야 해!'라는 것들을 복습노트에 날짜별로 정리했고, 매일 풀고 공부했던 EBS 단원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복습노트의 내용들을 1일, 1주일, 1달 뒤 시간에 맞춰 복습했습니다.



한양대 의과대학

졸업생이 전한다!

서울대 문과

시대재종

#### 스스로의 공부법에 확신이 없거나 선생님이 제시하는 공부법과 자신의 공부법이 다를 때 어떻게 하셨나요?

# 

#### @ 마성의 남자

시험 성적을 올리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 중 하나는 스스로의 공부법에 대한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인재에서 여러 시험을 치르다 보면 자신이 어떤 점에서 취약한지, 어디에서 헤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 취약점들을 메꾸기 위해 치열하게 공부법을 찾다보면 언젠간, 어떤 공부법이 자신에게 맞는지를 깨닫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 @ 논술 장원급제남

본인 공부법에 확신이 없다면, 시대인재의 학습 매니저 선생님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를 통해 부족한 부분은 채울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제시하는 공부법과 자신의 공부법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전혀 문제가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선생님은 예습이 복습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하시고, 어떤 선생님은 복습이 예습보다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공부법이 자신의 것과 다를 때는, 일단 그렇게 해 보고, 둘 중 본인과 맞는 방법을 찾거나 적절히 섞어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 학습 전반



#### 공부할 때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 @ 카대 유튜브남

시대인재 재종에는 매일 학습상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N수 실패에 대해 계속되는 부담감 및 불안감 등에 시달릴 때, 선생님께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며 상담해주실 때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성적에 대한 피드백도 해주시고, 때로는 편한 말동무가 되어주신 학습상담 선생님덕분에 재수 생활을 잘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 샤대 의샤

생활 패턴에 대하여 고민이 있을 때나 슬럼프가 올 때 생활 매니저 분들과 상담하면서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급식이나 시설 등 불편한 점이 있을 때마다 생활 매니저 분들께 직접 전달하여 빠르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매니저들의 역할에 대하여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매니저 분들이 학습 또는 생활 문제에 대한 상담, 혹은 불편한 점에 대한 피드백 등 다양한 도움을 주신다는 점을 알면 조금 더 편안한 부엉이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 마성의 남자

수능공부는 마치수도승과 같이, 끊임없이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바로잡고 실력을 정교하게 다듬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 순간 일희일비하지 않기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슬픔이 될 수도, 오늘의 좌절이 내일의 희망이 될 수도 있기에 하루하루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하게 앞으로 나아가자고 스스로 다독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으니 시험을 잘 봤다고 방심을 하지도, 시험을 못 봤다고 멘탈이 붕괴되지도 않을 수 있었습니다.



#### >실력이 늘고 있지 않다는 - 느낌을 받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 $\forall$

#### @ 논술 장원급제남

실력이 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공부를 하면 y=x 그래프처럼 실력이 쭉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y=[x] 그래프처럼 실력이 계단식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시대인재에서 공부할 정도의 학생이라면 조바심을 내는 것보다는 본인이 믿는 방향으로 쭉 밀고 나가는 것이 더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 @ 카대 유튜브남

이런 좌절감은 N수하면서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정을 억제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감정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설 모의고사를 풀고 난 후 특히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보통은 이를 새로운 동기부여로 삼았고, 현타(…)가 심하게 왔을 때는 이 감정에 매몰되지만 않게 조절했습니다.

#### @ 카대 사랑꾼

이럴 때 되게 슬럼프가 오는데 제가 슬럼프 때 읽었던 책에서 '물은 100°C에서 끓는다. 아직 99°C일뿐이다.'라는 말을 보고 '나는 아직 99°C라는 생각'을 가지고 꾸역꾸역 기어서 학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99°C에서 열을 안 가해서 끓지 못하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으로요.

#### 기출 활용



#### 많은 사람들이 기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본인에게 기출은 어떤 의미였나요?

#### @ 마성의 남자

저에게 기출은 '평가원이 내려주는 유일한 학습 지침서'였습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평가원은 매 시험마다 그 해, 그리고 다음 해의 학생들에게 문제로서 학습 지침을 내려준다고 생각했습니다.

#### @ 논술 장원급제남

과목마다 다른데, 수학은 기출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은 새로운 문제를 계속해서 마주치고 해결력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국어는 기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만큼 답이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문제들이 잘 없고, 무엇보다 기출문제에서 보여 줬던 글 쓰는 방식을 계속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 @ 재테크의 귀재

저에겐 기출의 의미가 과목마다 달랐는데, 국어 과목을 제외하고는 크게 기출에 의존하진 않았습니다. 국어는 선지 분석을 위해 여러번 풀었지만 다른 과목은 계속 풀다 보면 답이 기억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러지 않았고 '평가원의 사고방식과 논리를 배운다.' 정도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 @ 카대 사랑꾼

우리의 목표는 평가원 박살이지 절대 서바이벌 컨텐츠팀 농락이 아닙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패' 라는 말을 다들 아실 겁니다. 기출은 '지피'과정에 해당됩니다.



#### 학습할 때 기출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두셨나요?



#### @ 마성의 남자

국어의 경우, 저는 기출과 비기출의 공부량을 정확히 반반으로 공부했습니다. 기출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지문을 읽는 연습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비기출 지문을 통해서 낯선 지문의 큰 맥락을 읽는 연습을 했습니다.

#### @ 논술 장원급제남

수학과 과탐은 기출을 30% 정도로 공부하다가 9월부터는 전혀 공부하지 않았고, 국어 과목은 기출을 50% 정도로 공부하다 나중에 모의고사들이 쏟아질 때는 30% 정도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 @ 남중 남고 한양대

6평 대비를 하기 전까지는 기출의 비중을 70~80%로 유지했습니다. 5개년 기출과 선생님들이 뽑아주시는 기출을 공부했습니다. 이후에는 감각이 떨어졌다고 느끼면 킬러 문제들을 중심으로 몇 문제들만 따로 풀었습니다.



#### 기출을 다시 공부함에 있어서 무엇을 얻어가고자 했나요?



#### @ 남중 남고 한양대

국어의 경우는 여러 번 풀고 선지 분석을 하면서 평가원의 사고방식과 제 자신의 사고방식을 맞추는 데 집중했습니다. 나머지 과목은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와 어떤 난이도로 나오는지, 어떤 논리가 지금까지 쓰였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기출을 활용했습니다.?

#### @ 논술 장원급제남

수학과 과담에서는 반복되는 출제 포인트들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기출 속 반복되는 패턴들은 당연히 사설 문제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냥 푸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출의 출제 포인트를 느끼고, 다른 문제를 풀 때도 계속 인지하고 있으면 더욱 와닿기 때문입니다.

#### @ 카대 유튜브남

수학 및 과학의 경우 저는 주로 사설 모의고사를 풀다가 '문제가 이렇게까지 꼬여서(?) 나오나?' 의문이 들 때 기출을 활용했습니다. 이처럼 너무 과한 사설 모의고사의 난이도에만 빠지지 않게 스스로를 조절하는 용도로 기출을 이용했습니다.

#### @ 카대 사랑꾼

기출문제 공부의 목적은 정답을 맞히는 것 자체보다는 그 과정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칼을 숫돌에 가는 심정으로 정답으로 가는 과정을 정교하게 갈았으면 좋겠어요.

#### 다양한 컨텐츠의 활용



#### 과목별 연계교재 학습을 어떻게 하셨나요?

#### @ 재테크의 귀재

EBS 연계교재 학습은 국어와 영어를 위주로 하였습니다. 수학과 괴탐 같은 경우는 연계 체감이 크지 않기에, 수학은 풀지 않고 괴탐은 한 번 정도만 풀어보았습니다. 국어와 영어는 선생님들의 수업과 병행하여 지문 내용과 중요한 부분 정도는 무조건 알고 수능장에 들어가자는 마인드로 간단한 분석 및 암기를 진행하였습니다.

#### @ 논술 장원급제남

EBS는 작년에는 공부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 문학 독서 화작문 모두 풀었고, 중요도가 높다고 선생님께서 체크하신 부분들은 몇 번이고 다시 보았습니다. 수학은 수특과 수완을 모두 풀었고, 과담도 수특, 수완을 모두 풀었습니다.

#### @ 마성의 남자

수능 국어에서 EBS 문학 공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문학 연계자료를 공부했느냐 안 했느냐가 실제 시험에서 문학 파트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키는지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시더라도 EBS 문학만큼은 반드시 공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 카대 사랑꾼

EBS의 경우 시대인재 컨텐츠에 있는 EBS문제들만 풀었습니다. 과탐으로 화1, 생1을 선택했어서 생명과학1의 개념부분만 풀고 다른 문제들은 풀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수학 수특 수완은 사지도 않았습니다.



#### 과목별 세부사항

####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셨나요?

#### @ 논술 장원급제남

저는 평가원 교육청 영어 시험을 한두개 이상씩은 틀려본 적이 없고, 시대인재에서 제공하는 수업과 모의고사 외에는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어가 크게 부족한 학생이 아니라면, 재종 수업 듣고, 선생님께서 주시는 모의고사와 월례고사, 당해 나오는 평가원과 교육청 모의고사만 거르지 않고 풀어도 충분할 것입니다.

#### @ 카대 유튜브남

영어는 하루에 30분~1시간 정도 꾸준히 공부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평가원 시험은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후에 계속 영어 감을 유지하기에는 이 정도의 시간이 딱 적당했습니다.

#### @ 남중 남고 한양대

저는 이전 두 번의 입시에서 영어가 모두 2등급으로 입시에서 큰 단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영어 공부를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루 1시간 반~2시간 정도) 그 결과 이번 수능에서는 안정적인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어는 과목 중 가장 정직한 과목이기 때문에, 단어와 EBS를 중점으로 성실하게만 공부한다면 충분히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부엉이들의 말 말 말

'부엉이들의 말말말'은 작년 시대인재 재종을 경험한 3기 부엉이들의 진솔한 경험을 담았습니다. 그 때 그 시기에 느꼈던 감정과 생활들을 담백하고 솔직하게 담아, 누구에게나 처음일 지금의 수험생활에 조금의 위로 또는 보탬으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결국 시간이

#### 약이었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시대인재에서 재수를 하기 전, 1월 한 달 동안 좌절감에 지친 마음을 추스르고 왜 현역 때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 덕분에 좀 더 이성적으로 재수생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었으며 생활적인 부분에서 큰 어려움 없이 다시 수험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괴감, 자존감 하락, 질투심, 신세 한탄 등 부정적인 감정은 재수 시작 후에도 계속 이어졌으며 쉽사리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공부하는 순간순간 부정적인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며 집중을 방해했고 어떤 날은 이것이 길게 지속돼 온종일 우울해 하기도 했습니다. 재수 초반에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책도 보고

공부 외에 필요 없는 모든 것들과 자신을 격리하며 환경을 변화시켜 보기도 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이 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 기분에 대해서 무뎌지고 적응해 갔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슬슬 진정되면서 다시 의지를 갖고 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전체 공부의 80%를 수학에 집중하며 1월에 분석했던 제 약점들을 메울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제가 해야 했던 공부는 개념+기출 분석으로 너무나 당연히 하는 것들이었고 당연한 공부를 하며 당연한 문제를 어떻게 당연하게 풀지를 고민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것들을 하는 시기였기에 공부 자체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J.H Lee (男)

저는 재작년에 타 학원과 시대인재를 미리 경험한 상태에서 대학을 걸어두고 나서 다시 수능을 보겠다고 다짐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학원에 들어왔을 때, 기존에 다니던 대학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고, 동기부여의 최우선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4기 학생 중에도 대학을 걸어두었다거나 내가 충분히 갈수 있는 대학이 있음에도 그 대학을 포기하고 더 좋은 대학을 가겠다고 들어온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은 작년에 갔었던, 갈수 있었던 학교보다 더 나은 학교를 바라보고 재수학원에 들어오면 재수 초반에 좋은 동기부여가 될것 같습니다. 막연히 '가장 좋은 대학을 갈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닌 현실적으로 내가 갈수 있는 대학을 정해서 그 대학만 갈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초기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또한 저 같은 경우는 장수생이었기 때문에, 익숙하다면 익숙한 수험생활에 늘어지지 않으려고 환경도 바꿔보고, 공부 방법도 바꿔보았습니다. 장수생 분들은 수험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서, 어쩌면 이 대치동이나 수능과목이 익숙하고 다들어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재수 초반에 다시 수험생으로 돌아가면서 그런 마음이 제일 많이 드는데, 그럴 때일수록 하루하루가 낯설고 새로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상위권 장수생일수록 내용을 다아는 것 같다는 생각에 수업을 건성으로 듣기도 하고, 본인이 다 아는 내용이라서 자습의 집중력도 흐려지기 좋거든요. 물론, 초반부터 달릴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초반부터 무너지고 놓아버리면, 나중 가서 따라잡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수 초반에 특히 작년 수능 문제를 등한시하게 되거나, 작년 수능 문제를 보면서, "아. 내가 이것만 맞았어도, 또는 실수 안 했어도 올해 이 짓 안 하고 있을 텐데…."라는 문제들을 보고 자괴감이나 허무함에 빠질 때가 있을 확률이 높은데, 여기서 빨리 작년 수능에 대한 생각을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년의 나는 작년의 나이고, 올해의 나는 더 발전해서 수험생활 그만해야지."라는 생각을 억지로라도 해서, 작년의 아쉬움을 털어버리려고 노력했고, 자습 할 때나 하원 할 때 자기연민이나 대학에 간 친구들과의 비교를 잘 안 하려고 의식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재수 초반에 본인의 자습 최대 집중력 시간이나, 보통 이 정도 분량이면 할 수 있겠다는 자습의 양, 또는 숙제에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을 미리 파악해 두려고 했습니다. 많은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본인에게 필요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재작년의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집중력이 가장 높은 시기나, 본인의 공부 패턴 등을 정확히 알아둔다면 보다 더 밀도 있는 수험생활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S.J Choi

좌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학원 첫 날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강의실은 어딘지, 급식실은 어딘지, 뭘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방송 열심히 듣고 주변 사람들을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다시 열심히 해보자는 포부와 굳은 다짐으로 공부를 시작했지만 현타는 계속 찾아왔습니다. 원서를 너무 바보같이 쓴 게 후회됐고, 뚫린 과에 붙은 친구들이 부러웠고, 작년과 똑같은 공부를 다시 하고 있다는 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현타가 올 때마다 좌절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옆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 자습실 학생분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 방향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작년의 공부방법이 과연 맞았던 건지, 현역 때와 같은 컨텐츠를 공부해야 하는지, 자습시간에 과목별시간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등등 초반에 혼란기를 겪었습니다. 원래 듣던 현강이나 학원을 포기하고 재종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게 다소 불안으로 다가왔지만 학원생활을 더 착실히 하며 공부 루틴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낯설고 힘든 초반 생활을 보내고 나니 어느새 학원에 적응해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저는 최대한 잡생각을 덜 하고 담담하게 학원에 다니려 노력하였고 이런 마음가짐 덕분에 무너지지 않고 무사히 일 년동안 달릴 수 있었습니다. @ S.M Kim (女)

다니던 대학을

떠나야겠다는 생각



####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 하나하나

일단 저의 경우에는 대학을 다니다가 재수를 하게 된 사례였습니다. 저는 대학생활에 익숙해 있던 터라 1교시 수업을 가야 할 때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 학원에 와야 하고,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공부를 해야 했기 때문에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래나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은 상태로 재수를 시작했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나눌 사람도 학원에 없었고, 친구들도 자주 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결국 혼자서 어려움을 해결해나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강의와 말씀들을 들으면서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2019학년도 수능을 응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2월에는 수능의 감각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던 상태였고, 그때 중심을 잡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강의에 최대한 의지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약한 과목의 경우에는 해당 과목 선생님들을 수업 후

찾아 뵈어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고, 선생님들이

알려주시는 다른 팁들을 모두 제 걸로 받아들이고 싶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재종 선생님들을 믿고 따르며 공부를 했던 것이 초반에 공부의 중심을 잡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반 월례고사 성적이 상당히 낮았었고, 자습할 때 문제 풀이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함이 많았던 저로서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제 부족함을 탓하기보다는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었고 당장 성적에 미련을 가지지 않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수능 때까지 보완할 수 있을지 생각했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수능을 보러 가면 제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점수를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제 약점을 생각하면서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기보다는 약점이 보완된 나를 생각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 J.H Jung

다시 또 해야만 하는 현실을 마주하는 시기였기에 그냥 심적으로 매우 힘들었습니다. 저는 재수 1년의 시간 중에 이 시기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현역 시절 야심차게 계획했던 20살의 나의 모습이 아른거리면서 너무 서럽고, 나보다 열심히 안 한 것 같은 친구가 잘 되는 모습을 보니 이 대학입시 판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 나에게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었던 사람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나를 1년 동안더 뒷바라지해줘야 할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그냥 이런저런 다양한생각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정말 괴로웠던 것 같아요. 공부를 손에 잡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잡념이 많을 때인지라 정말 '하고만'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감정이 한 3월 좀 안 돼서 정리되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주변 동기들을 보았을 때, '재수'가 안겨주는 절망감, 세상이 다 미워 보이는 마법도 12월에서 아무리 길어봤자 4월 말까지인 것 같습니다. 아마 6평을 치르기 전쯤 되면 다 알게 됩니다. 일부 아이들을 뺀 주변 친구들 모두 나랑 동일한 처지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때부턴 '재수'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속상함이 사라지고 '아 뭐 다 같이 한 번 더 하는 거지'라는 생각과 함께 재수 동기들과의 대화 속으로 복잡한 감정을 가볍게 넘길 수 있게 됩니다. 그니까지금 심적으로 아주 괴로워도 그냥 버티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딱 체감하는 때가 누구나 올 거라고 생각해요. '재수'가 별거 아닌 것으로 느껴지는 타이밍이 찾아옵니다. 물론 그 뒤로도 현타가 종종 찾아오는 건 맞아요. 하지만 재수 초창기의 괴로움과는 무게감이 다릅니다.

그리고 한 마디 덧붙이자면, 감정을 추스르고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하는 것도 맞지만, 이 때 공부를 완전히 놓아버려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놓았다가 돌아가는 길은 배로 힘들어요. 엄청나게 치열하게 밤새우면서까지 공부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 그저 생활 방식 정도는 정상적으로 흘러가도록 지키는 선에서, 넉넉하게 여유를 두더라도 책상에서 완전히 떠나지는 마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때 학원도 빠지고 집에만 박혀서 혼자 끙끙거리면 재수 초기 병 치유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 J.H Lee (女)

#### 복잡한 감정을

#### 가볍게 넘기기



#### 롱런을 위한

#### 밸런스를 고민하며

저는 독학재수를 하고 결과가 아쉬워 시대재종 3기에서 삼수를 했습니다. 올 한 해 수험생활을 하며 초반에 걱정했던 점들 위주로 적어 봤습니다. 반면교사 삼아 성공적인 수험생활을 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수할 때 초반에 잠을 줄이는 등 무리한 공부를 해서 하반기에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삼수를 할 때 처음 한 생각은 '롱런을 위한 밸런스를 고려하자' 였습니다. 실제로 재종에서 공부를 잘 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충분한 수면을 취했고 저는 잠을 충분히 자는 것에 추가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1시간씩 재종반 친구들과 농구를 했습니다. '공부하는 데 괜한 시간 낭비가 아닌가' 라는 걱정도 했지만, 체력 또한 수험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에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낭비하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각자만의 피로를 적당히 풀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술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음주를 하면 숙취로 다음날까지 고통받을 수 있기에 결국 이틀을 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삼수생인 저는 같은 학원의 저보다 어린 학생들을 보면서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재수할 때 시대N에 들어올 성적이 안 됐기 때문에 시대 N에서 재수하는 학생들을 보며 부러움과 존경심이들었습니다. 또 몸을 혹사해가며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며 '나도 재수할 땐 저랬는데…. 올해는 하반기까지 생각해서 초반엔 천천히 달려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N수생 (N)2)들은 수험생활로인한 피로감이 있으므로 초반에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원들어오기 전엔 삼수생도 나름 장수생이라고 생각하여 약간 주눅들었었는데 학원 내를 보니 마냥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구요.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수험생이 많다 보니 삼수 정도는 꽤나 흔한 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이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걱정은 잠깐 접어두셔도 좋을 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창기에는 공부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하루에 14시간 정도를 보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니 공부가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 동안 잘 해오셨던 것처럼 본인만의 페이스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 S.H Kim



# DAECHI STORY

시대 재종생활을 하며 알아놓으면 편할 대치동의 다양한 시설들을 소개합니다. 대치동이 낯선 부엉이들은 잘 모를, 학원 주변시설의 꿀정보를 담았습니다. 등원하며 TAKE-OUT할 한 잔의 아메리카노, 새로운 문제집을 구할 수 있는 서점, 아플 때 찾아갈 가까운 병원과 약국, 그리고 숨겨진 맛집을 소개합니다.

#### 26 27

# CAFF

대치동에는 스타벅스 외에도 다양한 카페가 숨어있다. 골목골목에 숨겨져 있던, 혹은 이미 알고 있어도 가보지 않았던 카페들을 만나보자.



#### 대관령 다림원

'다림원'이란 이름에 걸맞게 생강차, 대추차와 같은 건강차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신기하게도 녹용을 판매한다. 무료주차가 가능하니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다리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된다.

매일 08:00~22:00 아메리카노 4,000원, 녹용차 12,000원



#### 할리스커피 한티역점

바로 옆에 스타벅스가 붙어있다. 스타벅스가 북적인다면 할리스로 넘어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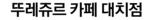
매일 08:00~22:30 (변동가능) 아메리카노 4,100원, 바닐라 딜라이트 5,400원



#### 껠끄쇼즈

음료보단 달달한 디저트를 전문으로 하는 인스타 감성의 카페이다. 장소가 다소 협소하여 친구와 오래 대화를 나누거나 자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 바닐라 타르트, 말차 헤이즐넛 타르트, 밤 흑임자 타르트가 시그니처 디저트이다.

매일 12:30~19:30 (월요일 휴무) 아메리카노 4,500원, 마카롱 3,000원



주말 낮시간에 도저히 비어있는 카페를 찾을 수 없다면, 뚜레쥬르 카페를 한번 들러보자. 앉아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카페 공간이 있다는 걸 모르는 학생들이 은근 많다.

매일 07:00~23:00 아메리카노 2,500원 (변동가능)





#### 우유니

우유 아이스크림 카페이다. 소금 아이스크림과 토마토 아이스크림이 가장 인기 있다고 한다. 한 번쯤은 베스킨라빈스 대신 4,2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시도해 볼 만하다.

매일 10:00~23:00 아메리카노 3,000원, 아이스크림 4,200원





#### 바나프레소 대치은마점

바나프레소의 아메리카노는 1,500원으로, '가성비 갑'의 명성을 달고 다수 학생들의 등원 필수템으로 자리매김했다. 4,000원의 바나치노 시리즈 역시 스타벅스 프라푸치노의 '가성비 갑' 버전으로 여름철 인기가 상당하다.

평일 08:00~23:00

주말 09:00~22:00 아메리카노 1,500원 바나치노 4,000원



#### 카페띠아모 대치점

젤라또 메뉴를 시그니처로 하는 카페이다. 태성 빌딩 주변 골목에 위치하고 있어 조용하며, 야외 테이블도 있어 날씨 좋은 날에 디저트와 함께 여유를 만끽하기에 좋다.

매일 09:00~23:00 아메리카노 3,500원 젤라또 와플 10,500원

#### 커피인류 대치은마점

껠끄쇼즈와는 다른 인스타 감성의 대치동 카페이다. 은마상가 쪽에 위치하고 있어 아직 많은 학생들이 모르는 숨겨진 커피 맛집이다.

매일 10:00~20:00 일요일 11:00~18:00 아메리카노 3,500원, 아인슈페너 4,500원



#### 오페라빈

은마아파트 단지 가까이에 있는 수제 마카롱 카페이다. 예꼬랑 (태성 빌딩 옆 마카롱 집)과 달리 앉아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딸기우유 마카롱이 베스트셀러라고 한다.

매일 10:00~20:00 연중무휴 아메리카노 3,500원, 마카롱 2,500원



아티제 대치은마점

평일 07:30~22:30

아메리카노 4,500원

주말/공휴일 08:00~22:30

다른 카페들에 비해 넓고 쾌적하지만 가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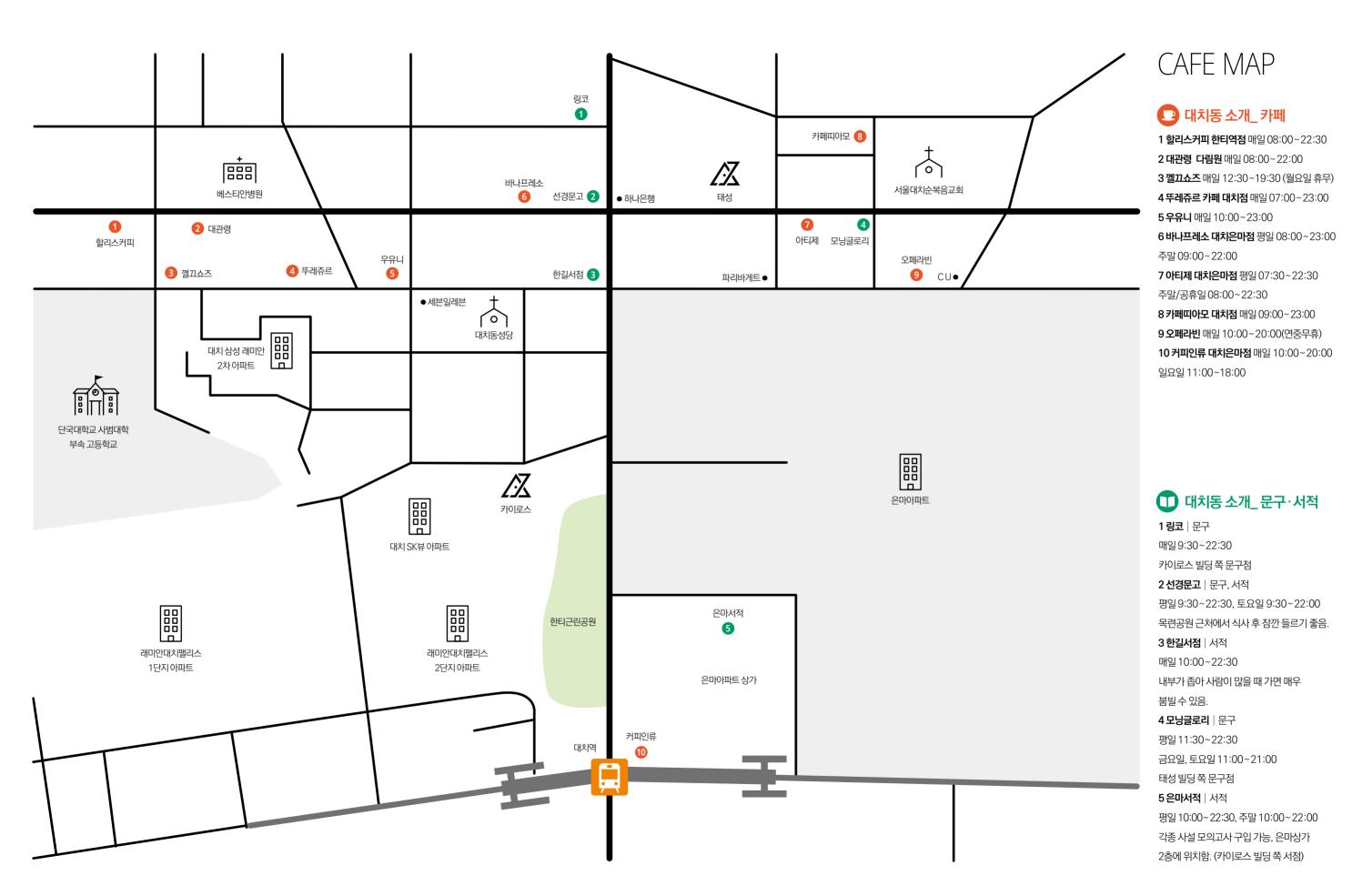
다소 '스벅'스럽다. 베이커리 카페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맛 좋은 빵과 디저트도 즐길 수 있다.









# HOSPITAL

대치동에 있는 수많은 병원들 중 지리적으로 부엉이들이 찾아가기 용이한 병원들을 추려보았다.

몸이 아파서 병원을 들러야 할 때

어디를 가야 좋을지 모르겠다면

적극적으로 참고해도 좋다.

#### 베스티안 병원

대치동에 있는 유일한 종합병원이다. 화상전문 병원으로 유명하긴 하지만, 다른 과진료진들도 잘 알려져 있다. 고된 수험 생활로 인해서 아픈 곳은 많은데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기 싫은 사람들이 가는 것을 추천한다. 이 병원에는 외과, 정형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이 있다. 또한, 이 병원은 응급실을 운영하므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몸이 아픈 부엉이는 이 병원을 찾아오는 것이 좋겠다.

#### 진료시간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점심시간 14:00~15:00 일요일, 공휴일 응급실 운영 Tel 02~3452~7575

#### 대치 W내과

친절한 여의사 선생님이 계시는 내과다. 주위 다른 내과들은 줄이 길어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병원은 비교적 한산해서 기다리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부엉이들에게 추천하는 무난한 병원이다.

#### 진료시간

평일 08:30~18:00 토요일 08:00~13:00 공휴일 휴무 Tel 02-539-9939

#### 유진성모안과

대치동에서 가장 유명한 안과이다. 예약 없이 간다면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는 병원이므로 병원에 방문하기 며칠 전에 예약하는 것을 추천한다. 의사선생님께서는 무심한 듯 다정하게 환자의 증상을 살펴주신다. 이 병원에서는 시력검사도 해주므로 급격히 시력이 나빠진 부엉이가 있다면 이 병원을 찾아가 봐도 좋을 듯하다.

#### 진료시간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30 점심시간 12:30~14:00 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음 Tel 0507-1428-8835

#### 이정균 내과

대치동에서 굉장히 유명한 내과이다. 이 병원에는 두 명의 의사선생님이 계신데, 한분은 남자선생님, 한분은 여자선생님이다. 물론, "이정균 내과"인 만큼 이정균 선생님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예약은 필수이다. 이정균 선생님은 예약하지 않은 환자는 받지 않는다.

#### 진료시간

평일 08:30~18:00 토요일 09:00~13: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Tel 02-567-6226

#### 김영기 이비인후과

유진성모안과와 마찬가지로 대치동에서 가장 유명한 이비인후과이다. 이곳 역시 예약을 하지 않고 찾아가면 대기시간이 굉장히 길며, 운이 나쁘면 진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심한 감기나 비염도 며칠 안에 금방 낫도록 처방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만은 곧 없어질 것이다.

#### 진료시간

화요일, 목요일 10:00~13:00, 16:00~19:00 토요일, 일요일 10:00~13:00 점심시간 13:00~16:00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휴무 Tel 02~554~5075

#### 대치 W피부과

환자의 아픔에 굉장히 공감을 잘 해주시는 다정한 의사선생님이 계신다. 수험생활 스트레스로 뒤집어진 피부 때문에 병원에 찾아가면, 선생님께서는 환자와 함께 안타까워 해주신다. 그리고 처방도 환자의 기호에 맞게 성심성의껏 해주신다.

#### 진료시간

평일 09:30~19:00 토요일 09:30~16:00 점심시간13:00~14:00 토요일은 점심시간 없음 일요일, 공휴일 휴무 Tel 02~2038~0259

#### 연세맑은 이비인후과

김영기 이비인후과가 너무 붐벼서 가기 부담스럽다면, 이 병원을 가보는 것을 추천한다. 정직한 진료와 처방을 해주는 병원이다. 이 병원에서는 마늘 주사, 태반 주사, 비타민 주사와 같은 영양주사들을 다수 처방해주므로 체력보충이 필요한 부엉이들은 이 병원을 찾아가 보는 것도 좋겠다.

#### 진료시간

평일 09:00~19:00 토요일 09:00~13:00 점심시간 13:00~14: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Tel 02~566~5525









대치동에서 혼자 먹고 싶지만, 인스턴트나 프랜차이즈는 피하고 싶을때, 부담없이 갈 수 있는 맛집 리뷰.



#### 집밥이그리울때가는밥집 **밥 짓는 집**

이미 대치동 주민들에게는 유명한, 대치동 생활을 오래 했던 본인은 2016년부터 애용해 온 집밥집이다. 학원에서 조금은 멀지만 주말에는 충분히 가볼 만한 상차림을 제공하며, 특히 집밥이 끌리는 수험생에게 집에서 먹는 느낌을 주는 밥집이다. 혼밥용 테이블부터 큰 식탁까지 1인에서 6인까지 몇 명이서 가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장소이며, 넓기 때문에 기다리는 일이 거의 없다. 7개의 집밥 메뉴가 있어 여러 명이 가는 경우, 각각의 메뉴를 1인 주문으로 다양하게 시키면 더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기본 밑반찬이 6개정도 나오는데, 밑반찬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바뀌며, 밥과 미역국도 함께 제공되므로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한 상이 제공된다.

추천메뉴 직화돼지 불고기 집밥 9,000 KRW 고등어 구이 집밥 9,000 KRW 가격대 9,000 KRW 영업시간 매일 11:00~21:00 (Last Order 20:30)



#### 엄마가 차려준 느낌의 아늑한 한식집 정가란

엄마 밥 맛집이다. 가게 내부에 들어가면 적당히 어두운 밝기의 조명덕에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집밥을 먹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김치볶음밥에는 닭날개 튀김이, 오므라이스에는 새우 튀김이 곁들여져 있다. '오므라이스=케찹밥' 이라는 다소 잘못 일반화된 공식을 깨뜨려주는 담백한 맛의 오므라이스이다. 선배부엉이에 따르면, 고단한 수험생활로 소화불량에 시달릴 때 거의 유일하게 식사 후 속이 편했던 맛집이었다고 한다. 특별할 것 없는 메뉴들이지만, 그런 메뉴들을 맛있게 요리하는 이 집이야말로 진정한

자극적인 맛에만 노출되었던 입맛을 조미료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추천메뉴 김치볶음밥 8,500 KRW 오므라이스 9,500 KRW 가격대: 5,000 KRW~11,000 KRW 영업시간: 화요일~토요일 11:00~21:00 일요일, 월요일 10:00~21:00 (Break Time 주말 제외 15:00~16:30)

맛집인듯!



#### 가마솥에 볶아 만드는 김치볶음밥집 미쓰꼬레아

점심메뉴를 정하지 못 했다면 김치볶음밥 전문점, 미스꼬레아로 가자. 가마솥에 볶은 김치볶음밥에 소세지, 참치, 삼겹살, 베이컨 등의 토핑을 추가해 먹을 수 있다. 간도 너무 세지 않고 토핑을 고르는 재미도 쏠쏠하다. (대충 가성비가 좋다는 말) 또한 음식점 내부배치가 혼밥에 적합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친구가 없는 부엉이들도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가성비가 좋아 인기가 많기 때문에 점심, 저녁식사시간이나 단과가 끝나는 시간은 줄이 꽤 있다. 그래도 생각보다 줄이 빨리 줄어드니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카카오톡으로도 주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는길에 주문을 해놓는다면 웨이팅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다. 주류는 판매하지 않는다.

추천메뉴 얼바인 소시지 6,900 KRW 옥수동 삼겹살 7,900 KRW 가격대 5,900 KRW ~10,900 KRW 영업시간: 매일 11:00~21:00 (Break Time 14:30~15:30)



#### 따뜻한 국물이 당기는 날씨에 찾게 되는 일본식 라멘맛집 **키오미라멘**

대치동에서 일본라멘을 먹고 싶을 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라멘집이다. 키와미라멘 연구실이라는 이름답게 6종류의 라멘이
존재하여 본인의 취향에 맞게 라멘을 먹을 수 있고, 라멘 이외에 돈부리
종류와 일부 사이드메뉴도 먹을 수 있다. 메뉴판에 라멘 사진과 설명이
존재하여 사전검색 없이 가서 메뉴판을 보고 음식을 시키기만 하면
되는 장점이 있다. 매장 가운데에 긴 테이블이 있어서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남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장소이기도 하며,
긴 테이블 이외에는 2인용 테이블만 존재하므로 한 두 명의 사람이
가는 것이 가장 식사하기 좋은 매장이다. 다만, 단과가 끝나는 시간인
12시 30분과 17시~17시30분사이에는 웨이팅이 있을 수 있다.
라멘의 국물 맛은 약간 짠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최적이지만,
짠맛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거부감이 들 정도는 아니다. 숟가락에
반숙란과 차슈를 올려서 면, 국물, 야채들을 한 번에 같이 먹으면 좋다.

추천메뉴 키와미라멘 7,500 KRW 카라미소라멘 8,000 KRW, 카츠동 8,000 KRW 가격대 7,500 KRW ~ 9,000 KRW 영업시간 매일 11:00~22:00 (Last Order 21:30)





#### 질과양이조화로운 중국집 **현경**

현경은 적당한 가격으로 맛있는 중국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이다. 음식들의 조리 상태가 우수하고 음식에 들어가는 재료도 알차 식감이 좋은 편이다. 식당 내부가 크고 테이블이 많기 때문에 식사 시간대에도 기다릴 일이 거의 없으며, 혼밥을 하기에도 매우 좋다. 또한 중식당에서 자주 찾는 메뉴들 중 취향에 따라 2가지 메뉴를 골라 같이 먹을 수도 있어 메뉴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식 특성상 다소 느끼할 수 있기 때문에 김치와 같은 밑반찬도 같이 제공된다. 맛도 우수하지만 양 또한 꽤 넉넉하기 때문에 든든하게 배를 불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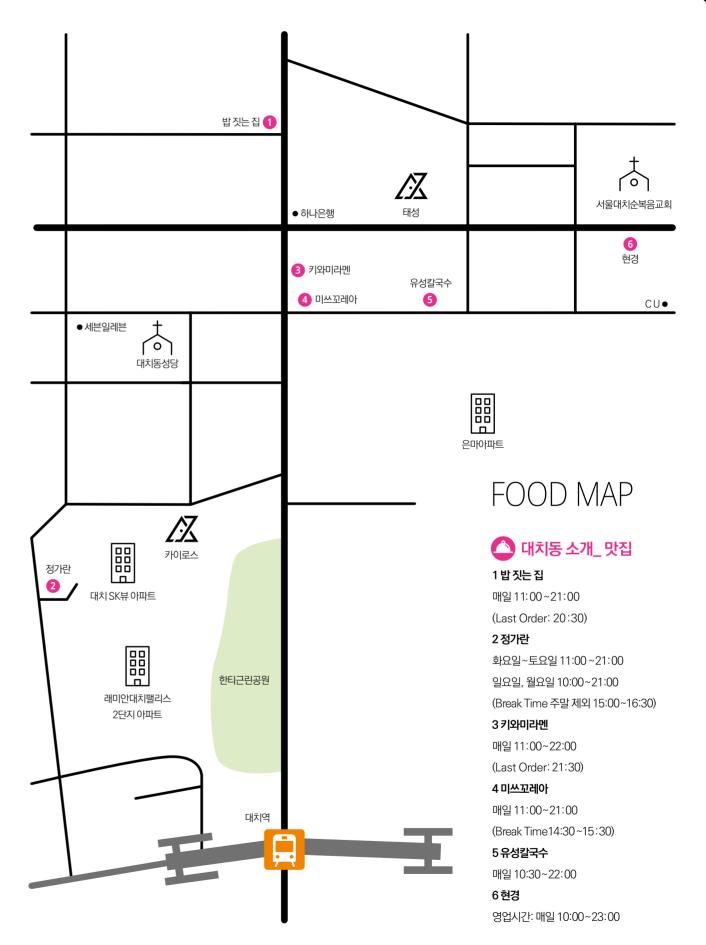
추천메뉴 탕짜면 8,500 KRW 볶짬면 7,500 KRW 짜장면 6,000 KRW 가격대 6,000 KRW ~ 9,000 KRW (식사류) 영업시간 매일 10:00~23:00



#### 뜨끈한국물과 담백한국수가 끌릴 때 찾는 칼국수집 유성칼국수

분식과 패스트푸드에 지칠 때, '법'이 먹고 싶을 때 찾게 되는 칼국수집이다. 유성칼국수의 면발은 적당한 두께로, 부드러운 식감을 갖고 있다. 칼국수의 고기육수 또한 꽤나 얼큰하여 밥을 말아먹기에도 좋다. 보쌈 정식의 경우, 다양한 밑반찬과 배추쌈이 제공되어 부드러운 보쌈고기와 함께 싸먹으면 풍미가 좋다. 찾기 쉽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아직 많은 대치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에 웨이팅도 없고 혼밥도 편하게 할 수 있다.

추천메뉴 유성칼국수 7,500 KRW보쌈정식 10,000 KRW열무김치말이국수 7,000 KRW가격대 7,000 KRW ~10,000 KRW영업시간 매일 10:30~22:00



#### 시대인재 매거진

다음 호차의 발전에 이바지할 부엉이들의 소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spc100000@naver.com

**발행인** 오우석

**발행처**(주)하이컨시

**편집부** 시대인재 매거진팀 spc100000@naver.com

**디자인** 임성진 xplusmedia@naver.com

**인쇄일** 2020년 5월 15일